

케이피에프, 상반기 매출액 1,813억원...전년比 1% 감소

▶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813억원, 영업이익 57억원, 당기순이익 33억원

▶ 전사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 기대...

<2018-08-14> 케이피에프가 2018년 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화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 케이피에프(024880, 대표이사 송무현, 김형노)는 2018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813억원, 영업이익 57억원, 당기순이익 3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1.3%, 24.3%, 38.8% 감소한 수치다.

회사 측은 “매출액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달성했으나 원재료비 상승과 환율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지난해부터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본사의 매출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이익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피에프 민양규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 법인은 이미 2018년 생산가능 물량의 수주를 완료해 2019년 영업을 하고 있고, 본사에서 2대의 설비를 이전해 CAPA를 확대했다”며 “베트남 법인은 하반기부터 고부가치 화스너와 자동차 부품까지 생산해 수익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법인은 하반기부터 신규제품 양산을 계획하고 있고, 본사는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 법인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며, “미국 지역별 영업 전문가 및 화스너 기술고문을 채용해 현지시장 밀착 영업활동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케이피에프는 2013년 2분기부터 21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